

문화 내면화 중심의 초급 한국어 수업 설계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와 『해님과 달님』을 중심으로

Designing a Beginner-Level Korean Language Class Focused on Cultural Internalization
: With Korean Folktales *Heungbu and Nolbu* and *The Sun and the Moon* as Core Texts

김민정* · 김경열**

국문요약 이 연구는 한국의 전래동화인 『흥부와 놀부』와 『해님과 달님』을 활용하여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내면화 수업을 '수용-표현-내면화(Story-Expression-Internalization)' 흐름으로 설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문화교육은 단순히 문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가 목표어의 문화를 스스로 느끼고 이해하며, 문화적 정보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할 수 있는 내면화 과정이 필요하다. 위 작품은 '도움'이라는 공통적인 주제와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 내면화 수업에 적합하다. 이에 텍스트를 초급 학습자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고, 차시별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감정을 표현하며 문화적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는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게 하고, 문화적 태도와 가치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초급 학습자, 전래동화, 수용-표현-내면화 단계, 문화 내면화, 문화 수업 설계

- 차례**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전래동화를 활용한 문화 수업의 실제
 4. 결론 및 제언

할 수 있는 수업 설계의 방향을 제시하며, 셋째, 초급 단계인 2급 학습자 수준에 맞춘 재구성 텍스트와 단계별 수업안을 제작하여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단계를 제안하는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선정된 두 전래동화의 서사를 분석하여, 2급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각 차시의 교수-학습 활동은 이야기 수용(Story) → 감정 및 문화 표현(Expression) → 문화 내면화(Internalization)의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1. 서론

이 연구는 한국의 전래동화인 『흥부와 놀부』와 『해님과 달님』을 대상으로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내면화 수업을 설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첫째, 전래동화를 활용한 초급 문화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탐색하고, 둘째, 문화 내면화 개념을 기반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

한국에 거주하는 중·고급 외국인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초급 학습자들도 K-문화나 일상생활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서는 문화보다는 언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급 문화교육은 수업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대학원 박사과정(제1저자)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부교수(교신저자)

실이다.¹

하지만 학습 초기 단계야말로 문화 수용의 가능성이 가장 크며, 동시에 학습자의 정체성과 자문화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 시기의 문화교육은 단순 지식이 아닌 정서적 공감과 가치 판단, 즉 ‘문화 내면화’를 유도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한국 문화를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사고와 감정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한국어교육에서는 ‘문화 내면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이것을 주제로 교육 방안을 연구한 것 중 중급과 고급 단계를 대상으로 한 전래동화 수업은 일부 찾아볼 수 있었지만,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전래동화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특히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내면화 중심의 교육 연구는 매우 적다. 이에 전래동화를 활용한 초급 학습자의 문화 내면화와 관련한 수업이 교육적으로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문화 내면화를 중점으로 한 수업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전래동화를 활용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래동화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감정, 사회 구조 같은 문화적인 요소를 잘 담고 있는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한국문화와 어휘, 표현들을 사용하면 이해가 수월하도록 맥락을 전해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내용이 친숙하고 명확해서 초급 학습자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흥부와 놀부』에서는 ‘착한 행동은 보상을 받고, 나쁜 행동은 벌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쉽게 전

달할 수 있다. 또 『해님과 달님』 같은 이야기는 가족 간의 약속이나 두려움, 지혜 같은 감정 요소가 담겨 있어서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을 하고 이야기 속 상징을 스스로 해석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전래동화라 하더라도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해서 교육의 내용이나 수업에서 다루는 활동의 방식이 달라지게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² 즉, 전래동화는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이 달라도 초급에서 중급, 고급 단계까지 반복해서 수업에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전래동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옛날이야기들과도 내용이 비슷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특징을 이용하여 나라 간의 문화를 비교해 보는 활동을 수업에서 다룰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몽골 전래동화인 「박타는 처녀」³는 박 속에서 복과 재앙이 나오는 구조로 「흥부와 놀부」의 내용과 비슷하고, 북미 이누이트 설화에서도 형제가 해와 달이 되는 이야기 구조가 「해님과 달님」과 비슷하다.⁴

이처럼 전래동화는 ‘보편성 속의 특수성’을 지닌 콘텐츠로, 학습자가 자국의 문화를 돌아보며 한국 문화와 비교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준다. 나아가 이것은 문화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비판적 성찰과 문화 감수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현대 동화도 문화교육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현대 동화는 작가 개인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문화

1 현재 한국의 주요 대학 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들을 살펴보면, 초급 단계에서 전래동화를 교재 안에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대한국어’, ‘연세한국어’, ‘이화한국어’ 교재는 초급 과정에서 전래동화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으며, ‘서강한국어 2B’에서만 「공쥐팔쥐」가 읽기 텍스트로 교재 안에 들어 있다. 즉, 전래동화의 교육적 가치와는 다르게 실제 교육에서 사용하는 교재나 교육 현장에서 전래동화를 활용하는 빈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전래동화를 활용한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내면화 수업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2 이영란은 「흥부와 놀부」를 활용해 수준별 다른 텍스트와 문화 요소를 가지고 수준별로 다르게 문화 수업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초급 단계에서는 내용의 이해와 등장인물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연결해 자신이 직접 감정 표현을 해 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중급 단계에서는 문화 요소를 자신의 나라 문화와 비교하거나 그 속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찾아보는 방식의 수업을 제안하였다.

3 몽골의 전래 설화인 「박타는 처녀」는 박 속에서 복과 재앙이 나온다는 구조가 『흥부전』과 유사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 설화로 지목되어 왔다. 양지선,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한국학』 3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341~361쪽.

4 북미 이누이트 설화에서도 형제가 해와 달이 된다는 유사한 서사가 발견되며, 이러한 비교 연구는 Park & Sánchez Garrafa에 의해서 다루어진 바 있다.

맥락이 편향적이거나 상징성, 가치 구조가 불명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전래동화는 다수에 의해 축적되고 세대를 거쳐 전승되며, 공동체의 세계관과 정서를 체화한 이야기로서 학습자의 이해와 감정이입을 유도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홍부와 놀부』와 『해님과 달님』은 ‘보상’, ‘금기’, ‘약속’, ‘도움’ 등의 주제를 통해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정서인 ‘정(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정(情)’이라는 정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학습자가 문화적 관점에서 감정과 가치를 내면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전래동화는 나선형 교육법에 따라 초급부터 중급까지 반복적으로 심화된 학습 내용으로 여러 차례 다룰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초급 단계에서의 문화 내면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어 학습 초기의 감정적 몰입과 비교문화 사고를 유도하는 수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현재 대학 기관의 초급 한국어 통합 교재에서 전래동화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한국어 기초 학습 단계의 문화교육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전래동화와 문화교육

한국의 전래동화는 한국인들의 전통적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담긴 문화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래동화를 활용해서 한국 문화를 학습한다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문화교육을 제안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화의 공감을 유도한 수업 구성 연구가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콘텐츠 형태의 전래동화 자료를 수업에 활용한

연구들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해님과 달님』을 구연 활동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초·중급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문화 언어적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한 연구⁵와 아시아 전래동화 비교를 통해 문화적 동질성과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문화 공감 교육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⁶ 등이 있다.

한편, 언어 기능과 문화 요소를 통합적으로 가르치고자 한 접근도 주목된다. 전래동화가 지닌 언어적 실용성과 문화적 보편성을 기반으로, 결혼이민자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문화 통합 교육 방안을 제안한 연구⁷와 『선녀와 나무꾼』을 활용하여 이야기 속 표현 교육과 함께 한국의 전통 가치관을 이해하는 수업 설계를 통해 문화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논의⁸ 등이 있다.

전래동화를 디지털 기반 교육 콘텐츠로 활용한 연구로, 디지털 전래동화 콘텐츠가 학습자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한국문화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⁹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구연 활동, 비교문화적 해석, 디지털 콘텐츠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래동화를 한국문화 교육에 접목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나 특정 언어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으며, 초급 학습자의 정서 및 인지 수준을 반영한 문화 내

5 박옥화, 「전래동화 〈해님과 달님〉 구연을 활용한 한국어문화교육: 초·중급 과정의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4),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6, 415~440쪽.

6 고경민, 「아시아 전래동화의 비교를 통한 한국 문화교육: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동화와 번역』 24,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12, 15~38쪽.

7 구선희·유승금,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문화 교육방안 연구: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19(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8, 45~64쪽.

8 양지선,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한국학』 3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341~361쪽.

9 최세훈, 「디지털 전래동화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문화 교육 방안 연구: 대만 중국문화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5),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2012, 203~230쪽.

면화 중심 수업 모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가 전래동화의 서사 구조와 문화 상징에 몰입할 수 있고, 그 속에 담긴 문화적 가치와 정서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는 수업 단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2.2.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 내면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내면화’란 단순히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학습자가 그 문화를 자신의 사고방식과 감정에 깊이 연결지어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문화에 대해 알고 외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속에 담긴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정서를 학습자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본인이 이해한 한국 문화를 자신의 문화와 연결지어 정체성까지 형성해 가는 심화된 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 내면화의 개념은 사회문화이론에 기초하여 설명할 수 있다.¹⁰ 비고츠키는 인간의 고등 정신 기능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화되는 과정을 강조하며, 언어와 문화는 사고의 매개로서 인간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한국어 학습자는 언어를 습득하는 동시에, 그 언어가 반영하고 있는 한국 문화의 가치와 사고방식을 함께 내면화하게 된다.

외국어 교육에서 학습자가 단순히 문화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문화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논의도 있다.¹¹ 이러한 ‘문화 간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은 태도, 지식, 해석과 관계 형성 능력, 비판적 문화 인식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형성된다. 이 중 ‘비판적 문화 인식’은 학습자가 한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이 이해한 한국 문화를 자신의 문화에 연결해서 비교하고 해석해 보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면화의 기반이 된다.

문화 내면화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외국어 교육에서 감성적 공감과 가치 중심의 활동은 학습자의 내면화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특히 ‘감정이입’은 초급 학습자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¹²

문화교육의 목표를 문화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문화의 가치와 태도를 학습자 스스로가 이해하고 받아들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내면화로 확장할 것을 주장한 논의도 있다.¹³ 이는 문화교육이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문화적 행동양식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내면화는 반복적인 표현과 맥락화된 활동을 통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에서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직접 표현해 보는 활동이 학습자들의 내면화를 유도하는 것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특히 자전적 글쓰기, 문화 체험 일기 쓰기 등의 활동이 학습자의 감정과 경험을 통합하여 문화 이해를 넘어 문화 수용과 동일화까지 이끄는 방식임을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내면화를 “학습자의 감정과 경험이 통합되어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상태”로 정의하며, 반복적이고 의미 있는 자기표현을 통해 학습자의 문화 수용 능력을 심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⁴

한국의 대중가요를 수업의 자료로 활용하여 효 문화

10 Vygotsky, L. S., 이병훈·이제혁·허승철 역, 『사고와 언어』, 연암서가, 2021.

11 Byram, M.,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Multilingual Matter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7.

12 허정미,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한 전통문화 가치의 내면화」, 『국악교육연구』 4(1),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2010, 147~176쪽.

13 이평전, 「황순원 소설의 서정성과 내면화 의미 연구」, 『호서문화논총』 24, 서원대 직지문화산업연구소, 2015, 119~130쪽.

14 남정연·박철우, 「결혼이주여성 대상 수필교육을 통한 내면화 사례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6(6), 한국문화교육학회, 2021, 105~131쪽.

교육에서의 학습자들이 감정을 표현해 보는 활동과 언어 기능적 영역과 문화와의 통합적 접근이 학습자에게 정서적으로 깊은 감응을 일으키며, 이러한 반응이 궁극적으로 문화의 가치에 대한 내면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논의도 있다. 이 논의에서는 협동적인 탐구 수업 방식은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타 문화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수용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¹⁵

이상을 종합해 보면 ‘내면화’는 문화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돌아보며 정체성의 형성을 돕는 중요한 교육 목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학습자들에게 문화에 대한 지식을 알려줄 때 문화 정보만을 제공하지 않고 학습자가 한국 문화를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자신의 경험과도 연결해 보며 결국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내면화’는 어휘나 문법, 언어 기능적 부분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가치관까지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교육으로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초급 단계 학습자보다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나 수필, 음악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 왔다. 또한 한국어교육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초급 한국어 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문화 내면화 수업을 전래동화를 중심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전래동화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감정이 들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에게 친숙하면서도 문화 요소에 대

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문화 자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 구성한 수업은 학습자가 전래동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전래동화에 나오는 장면과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한 후에 이것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문화적 태도와 가치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수업 단계를 수용(Story) - 표현(Expression) - 내면화(Internalization)으로 적용하여 수업을 구성하였다. 이 흐름은 학습자가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이것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3. 전래동화를 활용한 문화 수업의 실제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전래동화를 활용한 문화 수업을 설계하려면 먼저 교육 텍스트를 초급 단계에 맞는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여 다시 재구성해야 한다. 교육 텍스트로는 이야기의 내용이 단순고 어렵지 않으며 문화 요소가 잘 나타나는 <홍부와 놀부>와 <해님과 달님>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작품들은 사건에 대한 결과가 단순하게 전개된다. 또한 과거 한국 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서 문화 내면화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에 활용하기에 좋다.

본 연구에서는 전래동화 텍스트를 초급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재구성하면서, 어휘와 문법의 난이도를 적절히 조정하였다. 이에 『2017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어휘·문법 등급 목록』¹⁶을 기준으로, 초급 수준에 적합한 언어 요소를 중심으로 선별하였다. 그러나 시각 자료와 교수자의 설명을 병행하여 충분한 의미 전

15 권화숙, 「한국 대중가요를 활용한 한국 호 가치문화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언어·문화 통합 교육 기반 협력적 탐구학습형 교수·학습 모형 제안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2),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1, 195~210쪽.

16 국립국어원, 『2017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어휘·문법 등급 목록』, 2018.

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3급 이상의 어휘도 포함하였다.¹⁷ 아울러 각 텍스트에 제시된 문법 항목의 수는 작품의 담화 구조와 표현 기능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모든 항목은 초급 수준 학습자의 문화 이해 및 표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 중심 접근에 따라 선별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활용한 텍스트는 초급 수준 학습자의 이해도 및 문화 요소 전달력을 고려해 서사 구조를 유지하되, 어휘와 표현을 조정하여 재구성하였다. 이는 원 텍스트의 문화적 맥락을 보존하면서도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맞는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수용과 내면화를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1. 전래동화 텍스트의 재구성과 교육 설계

문화교육은 어휘나 문법을 배우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목표어 문화를 느끼고 이해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이 연구에서는 초급 학습자에게 교육하기에 적절한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와 <해님과 달님>을 활용한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 학습자 수준은 한국어 초급(2급)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텍스트는 문장 길이를 짧게 구성하였으며, 문화적 상징(예: 제비, 박, 호랑이)은 2급 수준에서 이해 가능한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수준 설정은 이후에 나올 차시 설계 및 활동 난이도(질문 유형, 쓰기 분량, 발표 방식)와도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동화집』(1924)에 수록되어 있는 <놀부와 흥부>를 기본 텍스트로 삼되, 일부 내용은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수록된 <놀보 박타령> 관련 정보를 보

완적으로 참고하였다.¹⁸ 특히 놀부의 박에서 나온 존재들을 도깨비나 귀신이 아닌,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서 제시한 중, 무당, 걸인, 연희패(남사당패, 각설이패 등)의 존재로 해석하고, 이들이 놀부에게 소리를 지르고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서사를 재구성하였다. 이는 부정적 결과를 문화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업 내 문화 내면화 활동에도 효과적으로 연계된다.

<흥부와 놀부>는 내용이 단순해서 아직 한국어 능력이 좋지 않은 초급 한국어 학습자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흥부가 놀부를 용서하는 결말은, 단순한 화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 ‘정(情)’이나 ‘형제애(友愛)’와 같은 한국적 정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¹⁹ 이에 따라 초급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 짧은 문장으로 구성하였고, 구어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실제 말하듯이 표현하려고 했다. 예를 들면 “흥부는 제비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 줬어요”처럼 실제 말하듯이 친근한 문장들로 구성하였고, 어려운 단어들은 쉬운 단어로 바꿨다. 또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없게 이야기의 장면 장면을 나눠 보여주었고, ‘제비’, ‘박씨’, ‘형제’ 같은 문화적인 상징도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초급 학습자에게 맞춰 난이도를 낮춰 학습자들이 이야기의 내용을 잘 따라가고 그 안에 담긴 문화도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하였다.

<해님과 달님>의 교육용 텍스트는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실린 서사를 기반으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급 학습자의 이해 수준과 수업 내 문화 요소의 자연스러운 내면화를 고려하여 일부 서사 요소를 교육적 목적으로 수정하였다.

17 ‘욕심’, ‘부러지다’, ‘제비’와 같은 어휘는 국제통용한국어교육 표준에서 3급 이상 수준에 해당하나, 시각 자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의미 전달이 가능하고 이야기 전개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재구성 텍스트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어휘 선택은 문화적 상징성과 이야기 구조상 생략이 불가능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이며, 교수자는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 따라 보조 자료나 제시 상황을 조절할 수 있다.

18 『조선동화집』은 고전소설 <흥부전>의 대표 이본인 경판 25장본을 간결하게 풀이한 구성으로, 이야기의 인과적 구조와 형제 간의 갈등·화해를 명확히 드러내는 점에서 초급 학습자용 재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놀보 박타령>의 문화적 배경과 상징 요소(예: 박에서 나오는 기생적 군상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어, 문화적 맥락을 보완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다.

19 권혁래 편, 『조선동화집(1924) 연구』, 보고서, 2013.

〈표 1〉〈흥부와 놀부〉 서사 재구성 예시

구분	서사내용
재구성텍스트	놀부는 박을 열었어요. 그런데 박 안에서 나온 사람들이 갑자기 놀부에게 소리를 지르고 놀부의 돈을 가져갔어요. 놀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놀보박타령)	중, 무당, 길인, 연희패 등 여러 기생적(寄生的) 군상들이 등장한다. 이들 역시 돈을 뜯어내어 놀보를 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텍스트는 초급 학습자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도움’, ‘형제와 남매’, ‘호랑이’와 같은 문화적 요소를 텍스트 안에 그대로 살리되, 초급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이는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호랑이가 어머니의 옷을 입고 머릿수건을 쓰고 변장하는 장면은 ‘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단순화하였다. 시각적 단서를 통해 의심과 판단이 이뤄지는 구조는 유지하되, 시청각 자료와 연계가 가능한 구체적 표현으로 조정함으로써 이해와 몰입을 동시에 유도하고자 하였다.

둘째, 마지막 장면에서 여동생이 밤이 무섭다고 하여 해가 되었다는 내용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 해석이 필요하여 초급 학습자에게는 난해할 수 있으므로 생략하였다. 대신 오빠는 달, 여동생은 해가 되었다는 결과만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이야기의 완결성과 문화 상징의 전달을 유지하였다.

〈표 2〉〈해님과 달님〉 서사 재구성 예시

구분	서사내용	재구성텍스트
호랑이 변장	호랑이가 이웃 부잣집에 품 일을 갔다 오던 늑은 어머니를 잡아먹고는 어머니의 옷과 머릿수건으로 변장을 하고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열고 한다.	호랑이는 어머니 목소리와 비슷하게 말했어요. “문 좀 열려라.” 호랑이가 말했지만, 아이들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호랑이는 자신의 손을 창문으로 보여줬어요.
해와 달	하느님이 오빠는 해, 동생은 달이 되게 하였지만 동생이 밤이 무섭다고 하여 역할을 바꾸어 오빠는 달, 여동생은 해가 된다.	하늘에서 오빠는 달이 되고, 여동생은 해가 되었어요.

두 이야기는 ‘도움’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착한 행동에는 보상이 따르고 나쁜 행동에는 벌이 따른다는 내용은 한국 사회에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정서와도 맞닿아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였고, 수업에서 학습자가 이야기를 읽고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의미를 해석하며 상징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업 단계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각 전래동화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어휘와 문법 요소, 그리고 한국 문화의 상징적 키워드를 중심으로 교육적 재구성이 이루어졌다. 아래 표는 〈흥부와 놀부〉, 〈해님과 달님〉에서 도출된 핵심 교육 요소를 어휘, 문법, 문화 범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들 요소는 이후 차시별 활동에서 문화 내면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와 활동 내용의 기반이 된다.

〈표 3〉차시별 교육 내용

작품	교육 요소		
	어휘	문법	문화
흥부와 놀부	형제, 착하다, 욕심이 많다, 제비, 치료하다, 박, 씨, 심다, 부러지다, 놀라다, 떠나다	-(으)ㄴ, -어지다, 처럼	제비, 보상
해님과 달님	해, 달, 호랑이, 비슷하다, 무섭다, 강, 줄이 내려오다, 줄을 끊다, 떨어지다	-면 안 되다, -지마라, -기 전에, -ㄴ 후에, 반말	호랑이, 약속/금기
통합		‘-ㄴ 적’이 있다, -어 주다	공동체 도움

위의 교육 요소는 이야기에서 중심이 되는 문화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제비 - 보상’, ‘호랑이 - 약속/금기’, ‘도움’ 같은 주제는 모두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정서적인 표현이고, 한국 문화의 중요한 가치인 ‘정(情)’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주제들은 초급 학습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경험들과도 비슷한 점이 많고, 수업 속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감하거나 문화적인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두 작품을 통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5차시에서

는 앞서 배운 1차시부터 4차시까지의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은 경험을 학습자들이 직접 글로 적어 보고 글로 표현한 내용을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니 적이 있다’와 ‘-어 주다’ 같은 문법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표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의 통합 수업 단계에 학습할 새로운 어휘를 제시하지 않고 빈칸으로 두었는데, 이는 통합 활동의 목적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내용을 핵심 주제의 활동 속에서 재활용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 차시에서는 새로운 어휘를 학습하는 것보다 도움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경험을 표현하고 문화적 의미를 내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언어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환경에서 학습한 학습자들은 스스로 한국의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살펴본 한국의 문화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서 내면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와 『해님과 달님』을 중심으로 학습자가 문화적 의미를 수용하고 표현하며 내면화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계하였다. 이 과정은 수용-표현-내면화의 세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학습자의 문화 이해가 점진적으로 심화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첫 번째 단계인 ‘이야기 수용’은 전래동화를 읽고 주요 어휘와 문법, 사건 전개를 이해하는 단계로, 학습자들이 문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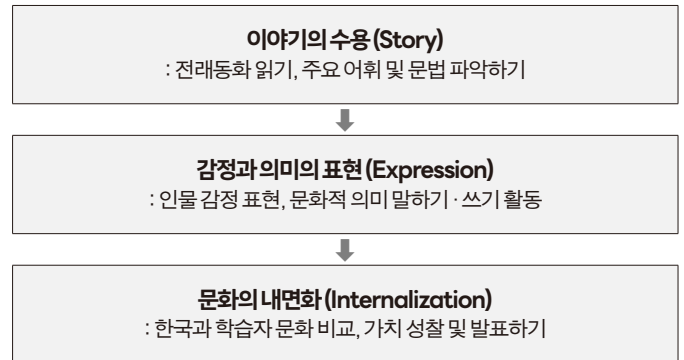
두 번째 단계인 ‘감정·의미 표현’은 등장인물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따른 문화적 가치에 대해 말하거나 쓰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인 ‘문화 내면화’는 한국 문화와 학습자 자신의 문화 경험을 비교해 보며 내면화된 인식이 새로운 텍

스트 수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학습 과정을 이룬다.

이러한 단계적 구성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1> SEI 모형에 기반 문화내면화중심 수업 설계도



(㉠ 반복적 순환: 학습자의 내면화 결과는 다음 이야기 수용으로 이어짐)

3.2. 차시별 교육 방안

수업은 총 5차시로, <흥부와 놀부>, <해님과 달님>을 중심으로, 이야기 수용 단계에서부터 정서적 공감, 자신의 의견이나 가치에 대한 표현, 한국의 문화와 자신의 나라 문화를 비교하는 비교문화적 인식과 자신이 이해한 한국의 문화를 자기의 경험과 연결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내면화까지 이어지는 흐름으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업은 5차시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4인 1조의 학습자들이 조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학습자 구성과 수업 상황에 따라 조원의 인원이나 활동 시간, 질문 난이도를 교사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2급 내에서도 수준 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질문-제시-표현 단계에서 보조 시각 자료의 양과 쓰기 분량, 발표 방식(개별/모둠, 익명/비익명)을 유연하게 조절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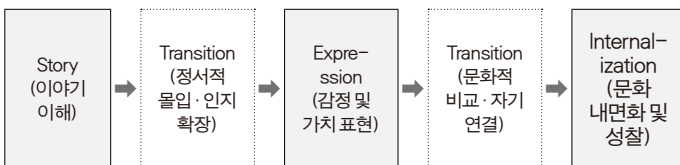
이 수업은 ‘수용(Story) - 표현(Expression) - 내면화(Internalization)’의 단계적 흐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각 차시는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과 문화 지식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1차시와 3차시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단계, 2차시와 4차시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

고 이것과 관련지어 자신의 감정과 가치를 표현해 보고, 5차시는 한국문화의 의미에 대한 자기 성찰 중심의 통합내면화 활동으로 구성된다.

특히 각 차시 간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수업 중간중간에 ‘질문’을 넣어서 다음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였다. ‘질문’은 다음 활동으로 연결이 되는 전이 장치로서 활용하여 학습자의 정서적 몰입과 사고의 확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나아가 각 단계 내에서도 교사의 질문은 ‘전이’의 기능을 하여 학습자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순차적으로 연결하고 확장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단계적 ‘전이’ 구조는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2> SEI 모형에 기반한 단계 간 전이 중심 문화수업 구조²⁰



각 수업의 차시별 수업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차시별 교육 내용²¹

작품	차시	교육단계	학습 및 활동 내용
흥부와 놀부	1	수용	어휘/표현 학습, 텍스트 읽기(내용 이해), 연습 문제 풀이
	2	표현 및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비의 상징 (개별 활동 및 일부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제비의 상징(좋은 소식, 우체국 상징) 소개 - 우리나라에서 복을 상징하는 동물 소개 • 박과 보상 (모둠 활동, 익명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한 일 → 복’이라는 전통적 가치 소개 - ‘내가 받고 싶은 보상’ 쓰기 활동

해님과 달님	3	수용	어휘/표현 학습, 텍스트 읽기(내용 이해), 연습 문제 풀이
	4	표현 및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 속 호랑이 (개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려움과 친숙함이 공존하는 한국의 호랑이 문화 소개 - 내가 좋아하는 동물 또는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동물 소개 • 약속과 금기 (개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간 약속 중시 등 전통 가치 소개 -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약속 소개
통합	수용	수용	두 작품의 도움 관계 정리 및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도움 문화 비교
	5	표현 및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 경험 쓰기 (개별 활동지 작성) • 소그룹 발표 및 모둠 대표 발표 • 교사 피드백 및 정리

3.2.1. 1차시 - <흥부와 놀부> 어휘 및 내용 이해

1차시는 본격적인 이야기 학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습자의 배경지식 활성화와 어휘 및 문법 학습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먼저 교사는 텍스트의 주요 장면과 관련된 사진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본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전래동화의 주제와 등장인물, 전개 방향을 예측하며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게 된다.

어휘 및 문법 학습 단계에서는 ‘제비’, ‘박’, ‘귀신’ 등 본문 이해에 필수적인 어휘와 함께 ‘-면서’, ‘-어지다’와 같은 문법 항목을 도입하여 형태와 의미를 함께 학습한다. 이때 교사는 예문과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어휘와 문법이 문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개별 연습을 통해 내면화를 유도한다. 이후 수업에서 텍스트를 읽을 때에 학습자가 먼저 개별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 이후에 교사와 함께 소리 내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한다. 텍스트를 다 같이 읽을 때에는 교사가 이야기의 주요 장면에 관련된 그림을 텍스트 옆에 넣어서 함께 보여준다. 학습자들은 그림을 보며 등장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내용을 쉽게 따라갈 수 있

20 본 도식은 ‘수용 - 표현 - 내면화’의 순차적 흐름 속에서 단계 간 전이를 통해 학습자의 감정, 가치, 문화적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21 본 표는 ‘수용 - 표현 - 내면화’ 교육 흐름에 따라, 각 차시별 ‘질문 - 제시 - 표현 단계’로 구성된 교수·학습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을 것이다.

〈표 5〉〈흥부와 놀부〉의 장면 그림 예시

	그림	제시 텍스트
흥부와 놀부		<p>어느 날, 흥부는 다리가 아픈 제비를 봤어요. 흥부는 제비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 줬어요.</p>

교사와 함께 내용을 읽어 본 후에는 이야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를 풀어본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알 수 있다. 그 이후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짧은 영상을 보여 주면 텍스트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영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1차시 활동은 학습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 2차시에서 진행될 감정 표현 활동과 문화적 내면화 활동 준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3.2.2. 2차시 - 상징 해석을 통한 문화적 가치 표현 활동

2차시는 제비와 흥부의 행동을 중심으로 문화적 상징 해석과 문화 가치 인식 활동을 병행하는 단계이다.

첫 번째 활동은 ‘제비의 상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비교 문화적 인식의 간접적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교사는 이야기 속 장면을 시각자료로 제시하며, 학습자에게 “제비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후 학습자들의 다양한 추측을 듣고, 한국에서 제비가 ‘행운’, ‘좋은 소식’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문화적 의미를 설명한다. 이때 학습자는 교사의 설명과 다른 학습자의 발화를 들으며 자신의 문화 속 동물의 상징성과 비교해 보는 간접적 사고 유도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되는 동물’을 개별적으로 떠올린 후, 발표하는 방식으로 간단한 문화 비교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직접적인 문화 비교 발화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문화의 상징을 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자 문화와 연결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비교문화 인식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계기가 되며, 해석 능력 및 문화 간 감수성 함양과도 연계된다.²²

두 번째 활동은 ‘박과 보상’을 주제로 내면화 요소가 강화된 표현 활동으로 구성된다. 교사는 “제비는 왜 흥부에게 좋은 박을 주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한국 전통문화에서 ‘착한 일 → 복을 받음’이라는 인과적 가치 구조를 간단히 소개한다. 이어서 학습자에게 “여러분이라면 어떤 보상을 받고 싶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표현 활동으로의 전이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이는 박과 여러 가지 보상 이미지를 그림으로 제시한 후 무엇을 받고 싶은지 생각하는 데 수월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3〉〈흥부와 놀부〉 2차시 ‘보상’ 제시 이미지 예시

학습자는 자신이 받고 싶은 보상이 무엇인지와 그 보상을 왜 받고 싶은지 등 간단한 이유를 메모지에 작성한 후 익명으로 제출한다. 교사는 수거한 메모지를 각 모듈별로 무작위로 4장씩 배부한다. 배부한 메모지에 있는 보상과 받고 싶은 이유에 대한 글을 모듈별로 읽어 본 후 가장 공감되는 보상에 대해 투표하고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지도한다. 이 활동에서 익명의 방식을 선택

²² Byram, M.,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Multilingual Matter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7.

하는 이유는, 학습자가 개인적인 희망이나 자신의 마음속 바람을 표현할 때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최소화 하고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자신의 감정이나 바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초급 학습자에게는 익명성이 보장된 표현 방식이 심리적인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모둠별로 투표를 하고 의견을 나눈 후에는 개별 의견을 활동지에 정리하고, 모둠 대표가 모둠별 투표 결과와 그 이유를 발표함으로써 내면화 과정을 마무리한다. 이러한 활동 흐름은 학습자가 이야기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보상 경험을 자신의 경험과 삶에 직접 적용해봄으로써 문화 자기화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간접적인 비교문화 활동과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활동이 자연스럽게 연결됨으로써, 단순한 문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뛰어넘어 학습자의 한국 문화에 대한 가치를 자신의 경험과 함께 연결지어 내면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3.2.3. 3차시 - <해님과 달님> 어휘 및 내용 이해

3차시는 전래동화 <해님과 달님>의 내용과 관련된 어휘와 문법을 학습하고, 텍스트를 읽어 보며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이다.

먼저 수업을 시작할 때 이야기의 주요 장면을 사진으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그날 배울 이야기의 내용을 추측하도록 하며 흥미를 유발한다.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이후에 진행될 텍스트를 읽는 활동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 이후 교사는 중요한 어휘와 문법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이야기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과 상징인 ‘호랑이’, ‘해’, ‘달’과 관련된 어휘를 배우고, ‘-면 안 되다’, ‘-지 마라’와 같은 금지 표현도 함께 배운다. 어휘와 표현을 미리 살펴보는 것은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읽은 후에 진행할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자연스럽게 갖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 읽기 활동은 먼저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텍스트를 조용히 읽어 본 뒤, 교사와 함께 음독하며 문장의 억양과 의미를 확인한다. 이때 이야기의 주요 장면들은 텍스트 옆에 간단한 그림 자료로 함께 제시되어, 학습자의 시각적 이해를 돕고 감정 및 문화 요소에 대한 몰입을 유도한다.

〈표 6〉 <해님과 달님>의 장면 그림 예시

	그림	제시 텍스트
해님과 달님		호랑이가 말했지만, 아이들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호랑이는 자신의 손을 창문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호랑이에게 문을 열어줬어요. 호랑이는 아이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 후 주요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짧은 애니메이션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이야기의 흐름과 감정선을 시각적으로 보완한다. 짧은 영상은 이야기의 장면 구성을 보다 선명하게 전달함으로써,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초급 학습자에게 시각적·청각적 이해 지원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인물의 표정, 행동, 말투 등을 함께 관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감정 표현 및 문화적 맥락에 대한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별 흐름은 단순한 읽기 활동을 넘어서, 이야기 속 행동과 감정에 대한 추론 능력을 기르고, 이후 문화 해석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3.2.4. 4차시 - 호랑이와 약속: 전통 가치의 감정적 공감 활동

4차시는 <해님과 달님>의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감정 이해와 문화적 가치 인식을 유도하며, 감정 및 의미 해석 활동과 함께 가족문화에 대한 내면화 활동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수업의 첫 활동은 이야기 속 ‘호랑이’를 주제로 진행이

된다. 한국 사람들이 호랑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호랑이는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는지를 자연스럽게 알아보는 시간이다. 교사는 “오빠와 여동생이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죠?”와 같은 질문으로 학습자들이 장면을 떠올리도록 이끈다. 이어서 “그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라고 물으며 감정 표현 활동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학습자들의 생각을 충분히 나누는 후에 한국 사회에서 호랑이가 단순히 무서운 동물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친근하고 과거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동물이라는 점을 소개한다.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와 민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모습의 호랑이들, 그리고 ‘범 내려온다’라는 한국의 노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마크 등 실제 호랑이가 담겨 있는 여러 사례를 함께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호랑이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한국에서 호랑이에 대한 상징성을 살펴본 후 자신의 나라에서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에 대해 간단히 떠올려본다. 그런 후에 발표하는 학습자와 발표를 듣는 학습자들 모두에게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은 교사의 직접적인 설명과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진행하여 간접적인 비교문화 활동이 되도록 한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나라 외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활동은 ‘약속과 금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자들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보고 글로 표현해 보는 단계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엄마와 남매가 나누었던 대화에 대해 질문한다. 그리고 엄마와 남매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지도한다. 이를 통해 가족들끼리의 약속은 과거부터 한국 사회에서 중요시했던 문화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알려줄 수 있다. 이어지는 활동에서는 남매가 엄마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 속 장면을 다시 돌아본

다. 그런 후에 약속은 안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가족과의 약속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마무리 표현 활동으로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의 약속’에 대해 메모지에 적어 보는 개인 활동으로 진행한다. 익명으로 작성한 메모지 중 모듈별로 1~2명의 학습자가 무작위로 뽑아 낭독하며 약속의 의미에 대한 공감과 반영의 시간을 갖는다. 익명의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실생활에서의 약속이나 이를 지키지 못한 경험에 대해 학습자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자칫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민감한 주제를 익명으로 공유함으로써, 학습자는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나누고, 타인의 경험에도 감정적으로 공감하며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이후 교사의 정리와 피드백을 통해 활동을 마무리한다.

3.2.5. 5차시 - 비교문화 내면화 활동

5차시는 두 전래동화를 모두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신과 타 문화를 연결 지으며 문화적 이해를 확장하는 내면화 중심의 차시로 구성한다. 이 차시는 학습자가 ‘도움’이라는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 한국과 자신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비교하고, 이를 개인적 경험과 연결하여 정서적으로 의미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우선, <흥부와 놀부>와 <해님과 달님>의 줄거리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정리하며 내용을 복습한다.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지난 차시에 학습했던 작품의 내용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된다. 이어지는 활동에서는 전통사회에서의 도움과 현대사회에서의 변화된 도움의 방식과 영역을 교사가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교사의 직접적인 설명은 초급 단계에서도 충분히 간접적으로 비교문화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간접 비교문화 단계에서는 교사용 시각 자료(PPT)를 활용하여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도움’ 문화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다면 학습자들의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슬라이드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5차시 간접 비교문화 수업 PPT 흐름

순서	핵심내용	교수의도
1	두 작품의 도움 관계 정리	이전 차시 복습, 이야기 간의 전이 유도
2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도움 비교 (간접 비교 문화)	학습자 사고 확장, 문화 개념 이해
3	나의 '도움 경험' 쓰기 활동 안내	문화 내면화 유도
4	소그룹 및 대표 발표 안내	상호 문화적 시각 공유
5	교사 피드백 및 수업 정리	문화 개념 내면화 마무리

이어서 교사는 '자신의 고향이나 한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통해 도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질문은 이미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문화 정보를 학습자의 실제 삶과 연결해 주는 전이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자국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소개하거나 다른 문화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교사의 설명과 질문을 듣는 과정만으로도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의 문화를 되돌아보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를 내면화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이렇게 교사의 설명으로 간접적으로 문화 비교를 해 보는 활동은 문화의 해석 능력 및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감수성 함양과도 연계되는 부분이다.²³

5차시는 1~4차시 수업 과정에서 이미 중요한 어휘와 문법을 충분히 학습한 상태로 진행되므로 학습한 표현을 활용해 보는 내면화 활동에 초점을 두어 진행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어휘 학습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도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표현해 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ㄴ 적이 있다', '-어 주다' 문법을 간단히 제시하여 자신의 경험을 글이나 말로 표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해 준다.

문화 내면화를 유도하는 활동은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보고 그것을 글로 작성하고, 소그룹과 교실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습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떠올려보고 활동지에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써 본다.

또한 학습자가 글을 작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도움 경험 활동지'를 제작하여 활용한다. 이 활동지는 학습자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떠올리며 그 경험 속에서 느낀 감정이나 문화적 의미에 대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활동지는 '도움을 준 경험'과 '도움을 받은 경험'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본인의 경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게 하였고, 작성 후에는 소그룹 내에서 작성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특히 1~4차시의 익명 기반 활동과는 다르게 학습자 본인의 이름을 직접 기입하여 활동을 진행하는 유일한 비익명 활동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드러내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문화적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활동지에 작성된 항목별 내용은 점수를 위한 평가도구가 아닌 교사의 질적 피드백 자료로 활용되어 학습자의 문화 내면화 정도를 파악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된다. 활동지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이름 / 작성일
- ② '도움을 준 경험' 또는 '도움을 받은 경험' 선택
- ③ 상황 설명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도움을 주거나 받았는지)
- ④ 그때 느낀 감정
- ⑤ 그 경험을 통해 느낀 한국 문화(또는 자신의 문화)와의 연결점
- ⑥ 발표 후 느낀 점 및 친구들의 의견 요약

²³ Byram, M.,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Multilingual Matter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7.

이와 같은 활동지는 학습자가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타문화를 이해하고 내면화(Internalization)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글을 다 쓴 후에는 모둠원들과 돌아가며 자신의 도움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의견을 나눈다. 모둠별 활동이 끝나면 대표 학습자가 발표를 한다. 이때 교사는 대표 학생의 발표에 대해 피드백과 함께 수업 내용을 정리한다.²⁴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문화 속에서의 경험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한국 문화를 자신의 삶 속에서 내면화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이번 통합 차시에서는 앞의 2차시와 4차시와는 다르게 쓰기와 발표를 익명으로 진행하지 않고, 소그룹 내에서의 발표와 대표가 공개적으로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2차시와 4차시가 학습자가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서적 준비 단계였다면, 5차시는 그러한 준비 단계를 거쳐서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는 전환의 단계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5차시에서는 익명성 대신 학습자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발표로 수업을 진행하므로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을 외부로 드러내어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런 과정으로 문화적 성찰을 더욱 깊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정보를 얻고 알게 된 문화는 혼자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다른 학습자들과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쳐서 더 넓은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이번 단계에서는 발표하는 학습자와 의견을 듣는 학습자들이 모두 한국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학습자가 다른 친구들의 경험을 듣고 그것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문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적인 계기가 될 것

24 이 단계에서 작성한 학습자의 개별 쓰기 결과물은 교사의 질적 평가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의 글을 통해 문화 내면화 정도를 파악하고 이것을 점수화하는 것이 아닌 언어적 피드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이다. 이러한 점은 공감에서 표현으로 이어지고, 또 표현에서 자기화로 이어져서 학습자의 문화적 내면화를 이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통합 5차시는 학습자들이 1차시부터 4차시까지의 학습 활동을 하면서 쌓인 문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자가 내면에 쌓인 지식을 직접적으로 글이나 말로 표현하고 다른 학습자들과 의견을 나누어 문화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²⁵

이 연구에서는 1차시에서 5차시까지의 수업을 설계할 때 각 차시별 주제들 간의 연계성과 전체 수업의 교육적 일관성을 모두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1차시부터 5차시까지를 정리해 보면 각 차시는 각각의 개별적인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차시에서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것은 문화를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수업이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즉, 모든 수업 구성이 ‘개인 → 관계 → 공동체’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은 학습자들의 ‘정서적 공감’을 출발점으로 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활동들은 ‘문화적 자기화’로 나아가는 내면화 수업의 구조를 보여준다.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내면화를 목표로 해서 한국의 대표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와 <해님 과 달님>을 중심으로 문화 수업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안한 수업은 수용(Story) - 표현(Expression) - 내면화

25 본 연구는 학습자의 내면적 변화를 수치화하여 평가하기보다는 ‘수용 - 표현 - 내면화’의 단계를 학습자가 타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문화와 연결지어 내면화하는 데에 성공적인 발전을 하였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학습 결과를 점수화하는 루브릭식 평가는 배제하고 학습자의 반응을 관찰하고 쓰기 결과물을 활용하여 피드백하는 형성평가 중심의 질적 점검 방식을 적용하였다.

(Internalization) 단계로 제시하여 단순히 이야기를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이야기를 읽고 한국문화의 의미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서 문화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두 작품은 ‘보상’과 ‘약속과 금기’, 그리고 ‘도움의 관계’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이러한 수업 흐름에 따라서 어휘나 표현을 학습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해 보고, 자신의 나라 문화와 연결해서 비교해 보는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였다. 또한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맞춘 재구성된 이야기 텍스트와 다양한 활동 설계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와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전래동화를 활용한 초급 학습자 내면화 수업을 직접 적용하여 학습자 반응에 대해 살펴보고, 다양한 전래동화를 활용한 수업 모형을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이어진다면 이 연구에서 제안한 전래동화를 활용한 초급 한국어 문화 내면화 단계별 수업이 더욱 실천적인 교육 자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고경민, 「아시아 전래동화의 비교를 통한 한국 문화교육: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동화와 번역』 24,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12.
- 구선희·유승금,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문화 교육방안 연구: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19(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8.
- 권혁래, 『조선동화집(1924) 연구』, 보고서, 2013.
- 권화숙, 「한국 대중가요를 활용한 한국 효 가치문화 교육방안에 대한 연구: 언어·문화 통합 교육기반 협력적 탐구학습형 교수·학습 모형 제안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2),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1.
- 남정연·박철우, 「결혼이주여성 대상 수필교육을 통한 내면화 사례연구」, 『문화예술 교육연구』 16(6), 한국문화교육학회, 2021.
- 박옥화, 「전래동화 <해님과 달님> 구연을 활용한 한국어문화교육: 초·중급 과정의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4),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6.
- 양지선,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한국학』 3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이평전, 「황순원 소설의 서정성과 내면화 의미 연구」, 『호서문화논총』 24, 서원대 지식문화산업연구소, 2015.
- 최세훈, 「디지털 전래동화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문화 교육 방안 연구: 대만 중국문화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5),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2021.
- 허정미,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한 전통문화 가치의 내면화」, 『국악교육연구』 4(1),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2010.
- Byram, M.,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Multilingual Matter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7.
- Park, Ho-Jin & Rodolfo Sánchez Garrafa., "The Origin Myth of Sun and Moon in the Andean and Korean Trad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17, 2022.
- Vygotsky, L.S., 이병훈·이제혁·허승철 역, 『사고와 언어』, 연암서가, 2021.

Abstract**Designing a Beginner-Level Korean Language Class
Focused on Cultural Internalization**

With Korean Folktales *Heungbu and Nolbu*
and *The Sun and the Moon* as Core Texts

Kim, Min-Jeong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im, Gyeong-Yeol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resents a cultural internalization-based lesson design for beginner-level Korean language learners using the Story-Expression-Internalization pedagogical model. It argues that cultural education should move beyond transmitting factual knowledge to fostering experiential understanding and personal connection with the target culture. Two traditional Korean folktales centered on the theme of “help” were selected, as they embody the moral principle that good deeds are rewarded and bad deeds punished—values deeply rooted in Korean cultural consciousness. The study adapts these stories for beginners and proposes a lesson structure in which learners read, express emotions, and uncover cultural meanings through individualized activities. This approach enables simultaneous acquisition of language and culture, encouraging learners to relate Korean cultural values to their own experiences. Ultimately, the lesson design promotes the natural internalization of cultural attitudes, transforming language learning into an integrative, culturally immersive experience.

Keywords Beginner Learners, Traditional Folktales, Story-Expression-Internalization Process, Cultural Internalization, Cultural Lesson Design
